

안녕하세요? 이번 2019학년도 부산 미술 임용에 합격한 위상미술 수강생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 기간제를 2009년 10월~2015년 2월까지하고 2015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총 4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상태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육학에서 파블로프? 응 침흘리는개, 그래서 그게 뭐지? 이런정도였으며 전공은.. 중학교 기간제교사 경험 덕에 아주 얇은 지식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식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 본 적 없어 간신히 고등학교를 가고, 간신히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도 반강제로 인해 갔기 때문에 다니면서 공부를 안했으며 또 공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게으름과 귀찮음이 심하여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있을 수 있는 성격이며 굉장히 소심하고 남 눈치도 많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4번의 시험을 치면서 꾸준히 공부하지 못했기에 이 글을 써도 될까 고민도 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께서 합격의 길로 이끌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준비..첫번째 시험]

울산 시험, 1차 컷에서 -0.6점 불합격.

이 때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서울을 왔습니다. 교육학은 비고학원의 고스교육학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들었으며 전공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위상미술을 무작정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처음인데 기본이론을 듣지도 않고 3월 심화부터 듣기 시작하였으며(교육학도 3월부터 했어요) 이 때 장지연 선생님께서 짜주신 스테디를 만나 공부했습니다. 저는 강사선생님께 상담받으러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임용카페의 존재도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기본서를 사서 기본서를 많이 봤습니다. 수업을 녹음해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못해서 당일 강의를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었고 무지한 상태에서 휘몰아치는 강의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스테디란 것을 처음 해봐서 솔직히 교육학 스테디, 전공 스테디 모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놀았는데 남은 시간에 저는 한다고 하는데 늘 아무말도 못하고 스테디에 민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5월부터 문제 푸는 것이 시작되는데 첫 주 딱 한 번 문제풀고 그 뒤로는 문제도 안풀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모르겠고 답안지 보면 공부한 내용이고 그게 반복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디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에 스테디원 중 한 명과 짝스튜디오를 하게 되었고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기본서를 정말 꼼꼼하게 다 읽으며 이해 안되는 부분을 모두 포스트잇을 붙여 스테디 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기억력이 안좋아 물어본 것을 또 물어볼 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고시원이 문제가 발생하여 한 달 가량 공부를 못했으며 시험을 2주쯤 남기고 부산 본가에 내려와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막상 집에오니 공부를 안해 헛시간만 보내고 울산에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는 1차 컷에서 -0.6점 모자란 점수였습니다.

[첫번째 시험 후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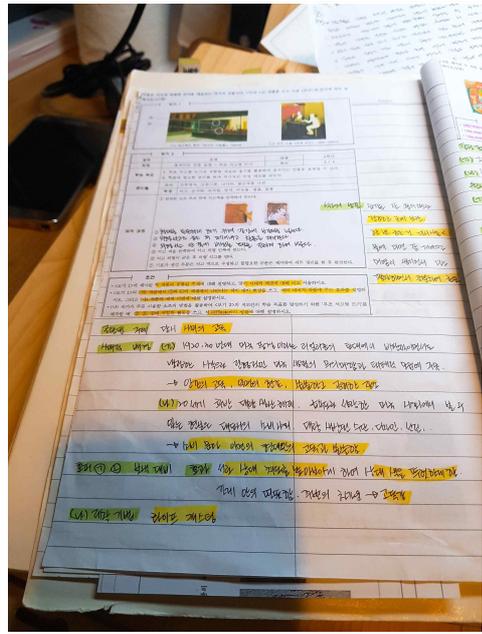
1차 결과가 나오고 처음으로 상담을 갔습니다. 위상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한 것을 들으시더니 공부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계속 남아 직장을 나오길 원하셨지만 10월 고시원 문제로 더 이상 서울에 있기가 어려워 본가에 가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대구 직장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컷에서 -0.6이 0.01로도 떨어진다는 시험에서는 큰 차이지만 저는 공부와 인연이 멀었고 집에서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사실 말도 안되는 점수가 나오면 시험을 바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0.6은 희망적인 점수였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 준비.. 두 번째 시험]

부산 시험, 1차 컷에서 +1점 합격, 실기에서-9점으로 최종컷 -2점 탈락.

<전공> + 교육학

1,2	1월 중순쯤에 부산에 내려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0.6이란 희망에 의해 1,2월을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도서관 가서 밤 11시까지 점심과 저녁밥 먹는 총 1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곤 공부만 했어요. 기본서를 엄청나게 계속 봤습니다.
3,4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건강관리..진짜 중요합니다. 목,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어 3,4월은 정형외과, 한의원, 마사지, 요가 등을 다니느라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3월부터 위상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대구 직강만 겨우 기차 타고 다녔는데 당일은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자마자 잤으며 다음날 반나절까지는 그냥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직강도 마치자마자 바로 기차타고 내려왔었습니다.
5,6	너무 불안해서 5월부터는 부산에 쌤선생님 직강 까지 총 두 개를 갔습니다. 이게진짜.. 제일 돈 아깝고 시간아까운 것 같아요ㅠ.. 직강이라도 가야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간 것이었는데 위상미술에서는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써낼 수 있었는데 쌤선생님건 문제를 볼 때마다 이 건 뭐지.. 이런 문제가 논술에 쓸 말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첨삭을 받았더니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한 답안도 감정이 되어있을뿐더러 별로 쓸 양이 없어보이는 논술문제에서는 양 부족으로 감점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쌤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의 교재를 보니 거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이론도 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며 알아봤더니 어마무시한 두개의 교재와 강의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민하다가 6월에 장지연 선생님께 상담요청을 하고 여쭙봤습니다. 제가 사실 쌤선생님 강의도 나갔는데 왜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거기선 문제를 못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지나 생각하면 장지연 선생님께서 정말 황당하셨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저에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어쩔 수 없었어요 ㅠ.. 결국 전 6월에 쌤선생님 강의를 가지 않았고 그렇게 강의를 날렸습니다ㅠ.. 이 후 위상미술을 계속 갔지만 다른 강의를 잠시 경험한 저는 다른 강의도 봐야하나 계속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7,8	부산에서 쌤선생님과 쌤선생님 듣는 분들께서 위상선생님 듣는 사람으로 스터디를 구해서 참여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를 각자 풀어오고 만나서 필요한 내용 설명하는 스터디였는데 쌤선생님문제는 너무 어려워 기입형은 0점인 경우도 있었으며 나중에는 하기 싫어서 안풀거나 자료를 찾아 베껴적었어요..
9,10,11	<p>이 때부터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걸 버리고 온전히 위상미술만 봤습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자료는 많았지만 봐도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위상미술을 병행하며 기본서를 끝까지 봤습니다.</p> <p>또한 보통 강사선생님 문제 답안을 암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암기할 자신이 없어 기본서 중간 중간에 종이를 더 붙여 밑에 첨부한 사진처럼 답안지 보고 작성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점이 취지파악 연습을 할 수 있으며 그 파트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내셨지?하며 바로 한 눈에 다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불어 잠을 때 오려붙이고 하니 좋았어요. 단점은 덕분에 기본서를 분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껍고 무거웠다는 겁니다 ㅠ...</p>



수업실연, 면접, 지도안 : 따로 스테디를 하지 않았고 혼자 했는데 사정이 생겨 시험 전날 딱 하루 연습해봤고 강의는 위상미술 들었습니다. 장지연선생님께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면접만 좀 감정되고 실연과 지도안은 감정이 거의 없어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총 -2점정도 감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면접만 -8점인 분을 들었기 때문에 못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2차 실기 : 저는 동양화 전공이고 사실 대학 갈때도 4달동안 암기해서 성적 하향 지원으로 갔으며 입시한 지 10년이 넘어 실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인체소묘에서 인체는커녕 소묘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수 때 임용카페란 것을 알게되면서 1차 시험 치고나서 기입형이 너무 많이 틀렸단 생각에(반타작 했습니다) 실기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1차 발표 후 급하게 실기학원을 가 3일 인체소묘, 3일 동양화를 연습한 후 시험을 쳤고 -9점을 받았습니다 ㅎㅎㅎ..

교육학

초수 때는 직강의 힘으로 3월부터 다녔지만 본가에 오니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이 교육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하고 있다가 여름즈음에 카페에 교육학 첨삭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연락을 했고 그 선생님께 첨삭을 받고 교육학 글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삭 받은 후 저는 시험 직전에 기출을 토대로 3개 정도 글을 써보고 초수 때 배웠던 교수님 서브노트 한번 읽고 들어가 14점을 받았습니다. 이 때 당시 전공이 점수가 높아도 교육학에서 과락이 나와 떨어진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첨삭해주신 선생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과락이었을 꺼라 200% 믿습니다.

[스터디 및 두번째 시험 후 느낀 점]

위에서 언급된 스터디 외에 자잘하게 스터디 했었습니다. 만나서 이론 보는 스터디, 전화스터디, 기상인증스터디, 교육과정 백지쓰기 스터디.. 게으른 제 성격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수 때 스터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상만 하다가 재수 때 많은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도움받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반대로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저 때문에 시작한 스터디긴 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성이 강하신 분들은 괜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1차 합격을 했을 때 저의 상태는 여전히 기본서를 엄청나게 본 상태로 정확한 페이지까지 모르지만 누군가 예를 들어 제 기본서를 보면서 데쿠파주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거 야수파 페이지 마티스 있는 부분 오른쪽 상단에 적혀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서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초수 때 문제를 안 풀고 넘겼던

것을 후회하며 재수 때는 모르겠으면 소설이라도 써가며 어떻게든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써서 내려고 노력했으며, 모의고사 성적은 40점대에서 60점대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대면첨삭은 성격이 소심하며 한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상담은 1월에 떨어진 후 위상선생님과 상담, 6월에 두 개의 강의 때문에 잠깐 10분정도? 장지연 선생님께 받은 상담이 전부였습니다. 대신 이 때는 초수 때처럼 시험 직전에 쉬는 경우는 없었으며 시험 끝까지 공부는 많은 적도 했습니다.

[2018학년도 준비.. 세 번째 시험] 부산 시험, 1차 컷에서 -0.6점 불합격.

이 때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π.. 거의 재수 때랑 비슷하게 했지만 조금 지쳐서 꾸준히 공부는 못하고 7월~10월까지 위상미술 직강을 나갔으며 11월부터는 아예 직강도 나가지 않고 인강도 듣지 않으며 집에서 휴양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장지연 선생님께 제 이름은 밝힌 적이 없는데 저의 이름을 알고 계셔서 당황+감사함+못한다는 소심함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이 때는 위상미술만 들었고 다른 강사 자료들도 여전히 받긴 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기상스터디 등 스터디에 약간 지쳐 스터디를 거의 참여하지 않아 스스로 공부해야 했기에 게으름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위상미술 내용만 보는것도 벅했어요. 재수 때 했던 문제 오려붙이기를 계속 하며 똑같이 공부했어요.

[2019학년도 준비.. 네 번째 시험] 부산 시험, 1차 컷에서 +5점 정도 합격(점수가 정확히 기억 안나네요;;) 〈전공〉

1,2	부산에서 공부하는 것이 점점 게을러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 했고 장지연 선생님께 다시 상담 갔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ㅎㅎ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느껴졌고, 선생님의 기대에 못미치게 죄송했습니다. 간혹 이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냥 많이 혼났어도 감사했어요. 이 때는 1월 강의를 인강으로 듣기만 하며 서울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교재를 포기하고 새 교재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따로 백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필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 필기가 되어있으니 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새로 구매했습니다.
3,4	서울 직강에서 장지연 선생님께서 짜주신 스터디에 참여하며 개인적으로 이론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장지연선생님께서 짜주신 스터디는 방향성이 저와 맞지 않아 중도에 그만뒀으며 이론 설명하는 스터디는 다 외워서 안보고 하는 것이 아닌 책을 같이 넘겨가며 슬쩍슬쩍 보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이 채워준다던지, 서로 모르는 것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5,6	장지연 선생님께서 짜주신 다른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5월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 답안지를 교환해서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답안이 너무 초딩 답안같고 키워드 없이 소설을 쓰는 느낌이라 그동안 답안을 공개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때 공개를 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다른 사람 글도 잘 안보게 되더라구요.. 그렇지만 그 덕에 첨삭이 없는 주도 최대한 열심히 쓰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더불어 따로 기출분석 스터디를 구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기출분석이 중요하다는 말만 들었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것인지 감이 안잡혀 하지 않고 있다가 위상미술 강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한다 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다 다른 강의로 공부중이셨습니다π... 거기서 매주 새로운 이론들을 들었고 저는 매일 그게 뭔가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만 반복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적어오기엔 너무 다른 사람 자료 욕심내는 것 같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 그냥 기출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한 번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여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많은 것을 아셔서 여기서도 저는 민폐같았어요ππ..

	<p>+6월 말쯤인가 교과서 자료 모으는 온라인 스터디도 참여했는데 진짜... 하기 싫어서 편집을 친구에게 맡기고 안했어요.. 모아놓은게 아까워서 출력은 했는데 왜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스터디였습니다ㅠ...</p>		
7,8	<p>이 때는 단체 스터디를 거의 관뒀어요. 거의 공부를 안했고.. 8월말 쯤 기출분석 스터디 선생님 중 쌤 들으시는 선생님과 각자 모고를 설명해주고 모르는 것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과 거의 시험 직전까지 나중에는 문제 뿐 아니라 이론도 봤으며 교육과정도 같이 했어요. 이분은 원래 위상미술도 들으셨던 분이구요 쌤선생님이 양이 적다고 들었는데 저는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흘러들으며 공부를 너무 안하니 이 선생님께 위상문제를 설명해주려면 그것 복습이라도 할 것 같아 참여했어요. 실제로 시험 끝난 후 선생님께서 쌤선생님께 도움되지 않았냐 하셨는데 그게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되는게 아니라서.....ㅎㅎㅎ...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게으른 제가 시험 끝까지 최소한 선생님 만났을 때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그 선생님은 서울 합격하셨어요!)</p>		
9, 10, 11	<p>4월에 힘든 일이 발생하면서 5월~추석 전까지 많이 방황하며 놀았습니다. 진짜.. 시험 공부하러 서울 올라온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온갖 문화생활은 다 즐긴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스터디들+직강만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은 것은 직강을 갔으며 직강을 다녀온 후 복습의 시간은 반드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가서 설명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개인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아 장지연선생님과 위상선생님 눈치가 보여 저도 모르게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ㅠ...</p>		
			
	3,4월 공부 스케줄러	5월~추석전 공부 스케줄러 (이 예시는 심각히 안한 것이지만 대부분이 이 비슷합니다ㅠ)	추석후~시험전 공부 스케줄러
	<p>추석 때 본가에 다녀온 후 급하단 생각이 들며 서브 아닌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심화 프린트 내용을 간략하게 2문단으로 쪽 써넣고 중간 중간에 위상미술에서 내 준 문제들 중 이론적으로 알아야 겠다 싶은 내용들을 추가했어요(ex. 펠드먼과 앤더슨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그래서 마지막엔 그것만 봤습니다. 추석 이후로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쉬는 날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험 전에 영화 너의결혼식,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 봤습니다. 대신 재수때 했던 위상미술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읽어 이해하고, 간략하게 쓰고, 형광펜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연습은 계속 했습니다.</p>		
2차	<p>실기 학원은 1차 시험 후 일주일만에 4일*2타임=총8타임씩 계속 갔습니다. 부산에 ㅇㅇ미술학원과 ㅇㅇ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ㅇㅇ미술학원 원장선생님께서는 인체소묘를 실기를 잘 못하는 임용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 ㅇㅇ미술학원도 원장선생님과 임용 경력이 많으신 강사 선생님들께서 거의 1:1 수준 비슷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꼼꼼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기 점수가 5점 넘게 올랐습니다.</p> <p>수업실연, 면접, 지도안은 한 번 잘 받은 경험이 있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1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 모두 하루 3타임씩 실기를 하셨지만 저는 면접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하루 두타임씩 실기를 했으며 계획과 다르게 저녁에 집에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ㅠ.. 실제로 면접책 본 날은 이를정도 었어요. 지금생각해보면 재수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간제를 한 지 얼마안되서였나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때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아닌 자신감이 차 있어 제대로 준비를 안 한 탓에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2차 변별이 갈수록 커지는 듯 하니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p>		

<교육학>

교육학.. 정말 혼자서는 힘든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 때 침삭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임용 교육학 강사로 나오게 되시면서 그 분 강의를 9~11월 들었습니다. ㅁㅁㅁ의 ㄱㄷㅇ교육학입니다. 솔직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강생은 3명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은 못하셨지만 직강생 세명 모두 1차 합격 했습니다. 강의 경력이 거의 없으시지만 저는 교육학 공부를 평소에 전혀 안했고, 막판에 초수때 공부했던 서브노트 한번 읽고 들어가는게 전부였습니다. 이번에는 ㄱㄷㅇ선생님께서 직강을 운영하셔서 9~11월 직강을 나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타는 의지로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갈수록 안풀고 넘어간 것도 있고 복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육학을 거의 안했지만 결과는 이번에 17점 나왔습니다. ㄱㄷㅇ교육학을 듣고 제일 놀랍고 좋았던 점은 글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전공에서 초딩같은 제 답안이 스트레스 였지만, 간간히 전해듣는 말에 의하면 채점자가 읽기 쉽게 답안을 쓰는게 점수가 잘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께 글쓰는 방법을 배우면서 왜 이렇게 글이 쓰여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려 전공에서도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하여 시간을 단축하였지만 교육학은 한시간에 두장이라는 많은 내용으로 항상 시간이 부족했는데 글 쓰는 방법을 배운 후 교육학 시간에 항상 5분 이상 여유 시간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험은 교육학, 전공 모두 다 풀고 꿀잠 잤습니다.. 아직 경력이 많이 없으셔서 뛰어난 강의전달력이 있는 건 아니시지만 쉽게 글쓰게 해주시는 방법과 더불어 꼼꼼한 침삭, 더없는 열정으로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주려 노력하십니다. 이론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잘 만나오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1.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의 시험을 치는 동안 초반에는 기본서를 많이 봤고 이번에는 심화를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이론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회독 한다, 한달에 몇 회독 한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시간 되는데로 봤습니다. 공부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을 끝까지 보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모의고사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적보다는 그냥 목표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를 넘기는 것에 관심받고 무엇이 침삭되었는지, 왜 침삭이 안된것인지에 대한 집착은 거의 안했습니다. 대신 침삭 받은 것들을 모아 공부에 무엇이 문제인지 상담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편식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전년도에 나온 부분을 거르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3. 위상미술 이외의 자료를 필요이상으로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느껴지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수 때 특히 이것저것 봐야되나 학원 자습실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자료가 보이면 저건 뭐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교과서와 기출도 사실 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거의 이렇게 생긴거구나만 느끼며 봤습니다. 또 기억이 안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타 강사 자료를 통해 들은 것도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일회성으로 들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아 여기서 가르쳐주셨구나 싶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놓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4. 위상미술을 선택하셨으면 전적으로 믿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수때부터 강의를 옮겨야 하나 고민 많이 하고 샘플도 들어봤습니다. 다행인지 샘플들에서 저랑 너무 안맞는 것이 느껴져서 옮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가르치는 내용들에 혼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그 혼란 느꼈던 것들 중에 우연찮게 찾게된 객관적 자료의 몇 가지에서 위상미술에서 배운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위상미술에서 배우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극적으로 방대한 양들을 모두 찾아가며 공부할 것이 아니기에 믿고 끝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 강의가 다들 꼭 들어야 하는 것처럼 언급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서미 초반 조금 듣다가 안들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개인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5. 필독서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장자연선생님께 추천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필독서라는 것은

딱 정해진 범위도 아니며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걸 모두 챙겨볼 순 없다, 길게 공부할 것 아니면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필독서는커녕 사전도 두세개 정도 궁금해서 찾은 것 외에는 보질 않았습니다. 6. 백지쓰기는 교육과정만 했습니다. 필기를 많이 하니 손목이 경련이 오게되어 펜을 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최대한 말을 하면서 공부하려고 했고 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이 백지쓰기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과정 외올때는 진짜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외워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학창시절 꿈도 없고, 공부와 담쌓았던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며 학생들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부에 위상미술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실제로 합격하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합격 후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 문자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시험에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한 것은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성격 탓에 꾸준한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할 때 왜? 라는 의문이 들 때 설명으로 먼저 너 이거 궁금했니?란 느낌으로 수업하실 때도 있고ㅎㅎ, 질문도 많았는데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이 합격자 발표날부터 연수가 계속 있어서 합격수기를 계속 못쓴 것이 마음에 걸렸고, 지금도 급하게 쓴 것이라 두서 없이 쓴 것 같습니다. 너무 위상미술을 찬양하는 듯이 썼나 싶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합격수기를 보면서 다들 어쩔 이렇게 로봇처럼 완벽하게 공부를 했을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나는 더 잘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시험 안칠꺼면 몰라도 어차피 칠 시험이라면 말이라도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 알지만 공부할 때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걸 해결했을 때의 희열감으로 즐겁게 공부하세요! 파이팅입니다!